절감으로 가는 길

재래식 전력의

한반도 배치 비율

BY

찰 에스 나이트

에서

한국 대 한국

재래식 군사 균형과 군축으로 가는 길 재래식 군사 균형과 군축으로 가는 길

찰스 나이트와 루츠 운터세어 리트

베라그, 뮌스터 2020

ISBN 978-3-643-14605-2(br.)

사용자 정의

한반도는 세계에서 가장 군사화가 심한 지역 중 하나입니다. 전쟁 이후 북부와 남부 간에는 오랜 기간 동안 첨예한 대치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독트린과 다른 쪽의 공세적인 전쟁을 막기 위해 독일은 선제적으로 대규모 작전을 계획했습니다.
배급을 통해 정점에 도달했습니다.

양측의 군사적 구조는 2018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밝힌 바와 같이 '안정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데 있어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기억, 그
군사 기관과 재래식 전략의 복잡성으로 인해 구조 변경 및 감축에 수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수직적 통합의 관점에서 구조 변화와 파괴를 가능하게 하는 이론과 실용적인 방법을 전달합니다. 양방향의 조합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독립적이지 않은 전문가, 정부 관계자, 군인 등 서로 다른 주체들의 참여 하에 일방적, 양자적으로 처리된 조치입니다.

한국 공동체의 최소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 과정의 또 다른 작은 단계가 바로 이 프로세스에 대한 열쇠입니다. 양면적이고 수직적인 구조 변경을 통해 정점을 넘어서는 드로우 요소를 대폭 줄임으로써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프로세스를 수행합니다. 완료될 때까지 1~2일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이 전환 게임에는 구조적으로 변화하고 축소된 군사적 잠재력이 반도에

서의 새로운, 더 튀는 관계의 토대가 될 것이라는 관점이 존재합니다.

초록

한반도는 세계에서 가장 군사적 긴장이 높은 지역 중 하나입니다. 한국전쟁 이후 남한과 북한은 60년 이상 고도로 무장한 채 대치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공격 교리와 의도에 대한 지속적인 인식으로 인해 대규모 국경을 넘나드는 작전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카운터) 공격.

현재 남한과 북한의 군사 구조의 규모와 유형은 2018년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선언한 "확고한 평화 체제 구축"이라는 의도와 모순됩니다. 전쟁의 기억, 대규모 군사 시설의 규모 축소에 대한 제도적 거부감, 재래식 전력의 내재적 복잡성으로 인해 실질적인 구조조정과 전력 축소는 수년이 걸릴 것입니다.

이 섹션에서는 신뢰 구축을 위한 군 구조조정과 규모 축소를 실행하는 이론과 실제 방법을 모두 제공합니다. 이 섹션에서는 상호 일방적 및 양자 간 협상을 통한 군 구조조정과 감축의 조합을 강조합니다.
비정부 전문가, 민간 공무원, 군 전문가로 구성된 다층적 기관이 참여하는 단계입니다.

최소한의 수용 가능한 공동의 정치적 미래에 대한 누적된 약속을 구체화하고 알리는 다양한 점진적 단계가 이 과정의 핵심입니다. 상호 신뢰구축을 위한 군 구조조정을 통해 국경을 넘나드는 침략 위협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간다면 변화된 관계를 위한 선순환의 고리가 형성될 것입니다. 반복적인 상호주의의 매몰비용이 축적되는 데는 10년 또는 20년이

걸릴 수 있지만, 결국 남북한은 새로운 평화적 정치 관계에 부합하는 안정적인 수준과 무기 배치로 빠르게 진전할 수 있는 소규모 재편된 군사 태세에 대한 입증된 의지가 충분한 시점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소개

2018년 4월 대한민국 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 위원장의 판문점 정상회담은 남북한이 "...한반도의 확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약속하는 공동선언과 "단계적-인간적인 군축을 추진하기로 합의" 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짐에 따라
군사적 신뢰 구축 (1)."

정상회담 이후 몇 달 동안 남북한 군 장교들이 신뢰 및 안보 구축 조치(CSBM)를 논의하기 위해 여러 차례 실무 회의를 가졌습니다. 또한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 비무장화를 위한 초기 조치를 취하고, 접경 지역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했으며, 서해 북방한계선을 따라 오랜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이후 2018년 9월 평양에서 체결된 군사합의서에서 구체화되었습니다(2).

이 정상회담은 미국 최고위 관리들이 위협했던 북한의 핵무장을 해제하기 위한 '군사적 옵션'(3)을 단기간에 폐기하는 즉각적인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당시 제가 썼듯이:

> "선언문 3.4항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북한이 취하고 있는 조치들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것이며, [남과 북은] 이와 관련하여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로 하였다'.

"3.4항에서 언급된 '조치'가 현재의 핵무기 및 장거리 미사일 실험 '동결'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동결이 유지되는 한,

한국이 선언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포함되는 한, 미국 내 예방전쟁 옹호론자들이 승리할 수 있는 논거를 만들기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적어도 현재로서는 이 '선택권'은 압류된 상태입니다. 판문점 선언은 사실상 한국이 북한과의 일방적인 전쟁에 동참하지 않을 것임을 전 세계에 알린 것이다(4)."

전쟁 대신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의 또 다른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워싱턴과 평양 간의 외교적 만남이 있었습니다. 2018년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북한은 낙관적인 공동성명(판문점 선언을 실질적으로 재확인하는)을 발표했습니다.
약속했습니다: "한반도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에 동참한다." 북한은 또한 4월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할 것(5)"을 약속했습니다.

후속 협상과 정상회담은 아직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큰 목표나 북한의 영변 핵 시설 폐쇄 준비, 2018년 북한과 한미의 상호 일방적 동결에 대한 공식적인 약속과 같은 작은 조치들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외교적 신호탄으로서 '동결'이라는 제스처는 애초에 정상회담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미-북 회담에서 재래식 전력의 구조조정과 감축에 대한 논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재래식 전력 감축은 지속적인 평화와 비핵화 중 하나 또는 둘 모두를 달성하는 데 필수적인 측면이 될 것입니다.

2018 년 (6) 디플로마틱 오프닝의 미래를 예측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이 섹션에서는이 섹션에서주의를 돌립니다.

한반도에서 재래식 군사력의 실질적인 감축을 달성하는 과정입니다.

한반도는 세계에서 가장 군사적 긴장이 높은 지역 중 하나입니다. 이는 한국전쟁이 초기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글로벌 냉전의 유산입니다. 한국전쟁 이후 남한과 북한은 60년 이상 고도로 무장한 채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 오랜 기간 동안 남북한 군대는 무력 통일이라는 궁극적인 상황에 대비했습니다. 이러한 전략적 방향은 상대방의 공격 교리와 의도에 대한 인식과 결합되어 대규모 국경을 넘나드는 작전 (대)공세를 계획하고 이를 뒷받침할 군사 구조의 구축과 무기의 획득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늘날 재래식 병력의 규모와 감축 전망에 대한 논의는 1950~53년 한국전쟁으로 인한 막대한 인명 피해를 인정해야 합니다. 연구자들은 150만에서 450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이 민간인(7)입니다. 이 학살에 대한 집단적 기억은 여전히 강력하게 남아 있으며, 이는 남과 북이 대규모 재래식 군대에 대한 정치적 애착을 갖게 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38선(th)의 양쪽에서 신뢰와 확신을 구축하는 것은 모든 군축 노력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이는 쉽지 않은 일이며 미소 짓는 지도자의 친절한 말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한국의 오랜 냉전 기간 동안 발전된 군사 구조의 규모와 유형은 이제 "확고한 평화 체제 구축"이라는 선언된 의도와 상당한 긴장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그리고 모순되기도 합니다). 실질적인 군 구조 개편은 새로운 평화 시대라는 범국민적 목표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전쟁의 기억, 대규모 군사 시설의 규모 축소에 대한 제도적 거부감, 그리고 내재된 복잡성 때문에

재래식 병력은 수십 년이 걸리는 상당한 구조조정이 필요합니다.

다음 글에서는 군축 협상과 국제 안보 안정화의 이론과 실제에 대한 두 가지 중요한 공헌을 통합합니다. 하나는 크리스토퍼 로렌스의 *<북한과의 관여 이론>에서* 제시된 내용입니다. 로렌스는 외교에 대한 "당근과 채찍" 접근법을 거부하고 "약속하지 않은 국가가 받아들이기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거나 되돌리기 어려운" 점진적인 "물리적 변화(8)"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정치적 미래"를 공유하는 관계를 구축하는 과정을 제안합니다.

또 다른 기여는 신뢰구축방위(C-BD)라고 부르는 군대의 [재]구조화에 대한 접근 방식에 대한 루츠 운터세어와 (제가 속한) 동료들의 연구입니다(9). 아파르트헤이트 이후 남아프리카의 안보 전망에 관한 1996년 논문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 각국의 [군사] 태세는 (구체적으로) 국가 간 신뢰 증진을 향한 진전에 부합하고 도움이 되어야 하며, 이는 모든 광범위한 협력의 필수 조건입니다(10)."

이 섹션에서는 향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신뢰구축형 군사 구조조정을 협상하고 실행하는 이론과 실제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 섹션에서는 비정부 전문가, 민간인, 군, 민간단체로 구성된 다층적 기관이 참여하는 호혜적인 일방적 조치와 양자 간 협상을 통한 조치의 조합을 옹호합니다.

정부 관계자 및 군사 전문가를 대상으로 합니다. 축적된 정보를 구현하고 신호를 보내는 다양한 점진적 단계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합니다.

남북한 모두의 국가 안보를 포함한 한반도의 미래 비전에 대한 공동의 노력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저는 구체적인 군 구조 개편과 군비 감축의 예시를 들었지만, 북한이나 남한에 특정한 조치를 권고하지 않으며, 오직 한국만이 한국의 이익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조치를 개발하고 협상해야 합니다.

복잡성
재래식 군비 감축 협상의 비율

두 개 이상의 국가가 재래식 군비 감축을 협상할 때는 국가 안보 상황의 수많은 내재적 비대칭성을 해결해야 합니다. 협상가들은 매우 복잡한 군사적-정치적 문제에 직면하기 때문에 성공적인 협상은 드뭅니다.

무기 협상가들에게 무기를 동일한 수로 제한하는 것은 종종 매력적인 목표였습니다. 어떤 합의든 공정한 것처럼 보이게 하여 국내 정치에서 더 쉽게 설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군 지도자들은 재래식 무기의 평등화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이 직업적 역할인 군인들은 "공평한 '경기장'에서 싸운다는 생각에 저항합니다." 대신, 그들의 목표는 전장을 장악하고 최소한의 손실로 전장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소규모의 변화된 군대가 국가 방위에 충분한지 확인해야 할 책임은 국가 정치 지도자들에게 있습니다. 이러한 책임은 신뢰할 수 있는 평화로의 전환에 적합한 병력을 점진적으로 감축하는 동안 상당히 까다로운 책임입니다. 감축과 구조조정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미래의 국방

소요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국가적 목표는 군 지도자의 선호를 초월하여 대규모 병력을 유지하는 쪽을 선호할 수 있으며, 때로는 그래야만 합니다. 한 국가가 대규모 군대를 구축한 후에는 재래식 무기를 확보하기 위해 강력하고 단결력 있으며 끈질긴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감소합니다.

군비 감축을 지원하는 신뢰 구축 방어의 이점

국가 정치 리더십은 다른 국가와의 군비 감축 협상에서 군사적 동등성을 주장하는 데 국한되지 않습니다. 신뢰 구축 방어(C-BD) 구조(11)는 자국의 준비된 영토에서 싸우는 여러 가지 이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안정적

주변 국가의 군사 태세 비대칭.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현지 지형을 잘 알고 있으면 전투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여러 전투 위치를 미리 설계할 수 있으므로 분산된 위치에서 전장을 엄폐하고 "두텁게" 사격장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병력 배치를 통해 원거리에서 적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침략군이 공격을 뒷받침하기 위해 구축할 수 있는 방어용 거점보다 더 많은 거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신뢰 구축 방어는 침입 세력에게 다양한 요소로 구성된 복잡한 네트워크를 제공하므로 전투가 전개됨에 따라 전술을 조정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다양한 방어 거점은 아군 이동 유닛에 필수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기갑 유닛이 반격하는 동안 침입 부대를 결정적으로 차단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 전투 부대는 주요 역할에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며 전체 계획에서 상호 지원하도록 설계되어 병력 할당, 지휘 및 통제를 용이하게 합니다.

- 통신 및 공급 라인은 짧고, 안정적이며, 이중화되어 있고, 강화되어 있습니다.

- 침략군에 비해 조국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군대는 사기가 매우 높아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부록에서는 신뢰 구축 방어를 위한 설계 원칙과 운영 지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신뢰 구축형 방어 최적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은 상당한 *작전상의 보안 여유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운영상의 여유를 통해 다음과 같은 군사 구조적 역량을 자체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 국경을 넘나드는 공격. 구조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기회는 과거에 적대적이 스스로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방어 구조에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할 때 더욱 두드러집니다.

신뢰 구축 군사 태세는 군사 투자가 지역 관계의 지배가 아닌 국방

자급자족을 위한 것임을 주변국에게 안심시키는 신호입니다. 상호 신뢰 구축 군사력 재구성을 통해 국경을 넘나드는 침략 위협을 점진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은 군사력 강화의 *선순환을* 구성할 것입니다.

새로운 군사 및 평화 프로그램이라는 공동의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떤 국가도 동일한 지정학적 상황에 직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협상을 통한 감축은 비대칭적인 종착점을 예상해야 합니다. 한국의 경우 남과 북이 서로 다른 국방 요구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분석과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반도 평화가 공고한 미래에는 중국과의 국경이 1416㎞, 남한과의 국경이 238㎞, 러시아와의 국경이 18㎞, 해안선이 2495㎞인 북한은 해안선이 2413㎞로 비슷하지만 북한과의 육상 국경이 238㎞인 남한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지상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상대적으로 해상 전력에 더 중점을 둘 수 있습니다.

적절하고 충분한 군사 태세란 국가의 자원 및 인구 통계적 제약 내에서 환경적으로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군사 태세입니다. 이러한 군사 부문은 국가가 다른 경제 및 사회적 우선순위를 위해 자원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As

남북한이 평화로운 한반도라는 새로운 공동의 정치적 목표에 적합한 수준으로 군대를 감축하면 사회 및 경제 개발 열망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12).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 강력한 리더십의 중요성

이웃 국가의 정치적 리더십과 군사력이 공격 지향적인 것처럼 보이면 위협을 받는 국가는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비용이 많이 들고 위험한 공세 전략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공세적 전략의 채택은 역동적인 효과를 가져옵니다.

두 주에 영향을 미치면서 보안 딜레마와 각 주별 상호 적대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역학 관계는 급격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국에서도 종종 그랬듯이 국제 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적대적이었던 두 국가가 지속적인 평화 관계를 구축하기로 결정한 시점에 도달한다면, 우리는 해당 국가의 지도자로부터 그러한 미래에 대한 약속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약속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남북한은 가장 최근에는 2018년 판문점 선언을 통해 남북한이 평화와 번영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설득력 있는 의지의 표현만으로는 군축 프로젝트가 초기 회의를 훨씬 넘어서는 데 충분하지 않습니다. 갈등 관계에 있는 양측의 합리적이고 책임감 있는 리더십은 그러한 "열망적 약속"의 가치를 평가할 때 매우 신중을 기할 것입니다. 남북한은 오랜 기간 갈등 관계에 있었고, 몇 차례 관계 개선이 있었지만 평화에 대한 희망은 산산조각 났으며, 전쟁 가능성과

때로는 예상되는 전쟁에 대비해 무장을 해왔다. 새로운 열망으로 표현된 변화가 대규모 군축을 정당화하려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관성 있게 수행되는 많은 행동을 통해 현실화되어야 합니다.

크리스토퍼 로렌스가 주장했듯이, 불신에 대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깊은 의혹을 품고 있는 과거의 적대자들이 착수한 복잡한 프로젝트는 양측이 잠정적으로 수용하고 궁극적으로 완전히 헌신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용 가능한 공통의 정치적 미래를*** 찾아야 합니다(13).

한국의 경우 이러한 정치적 미래를 구체화하는 작업이 남아 있습니다. 통일이라는 오랜 국가적 목표의 최종적인 해결이 반드시 재래식 군축 프로세스의 틀일 필요는 없습니다. 중간 목표는 그 과정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이러한 임시 비전에는 '하나의 국가, 두 개의 체제'라는 개념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과 북은 통일이 아닌 '하나의 국가'라는 실체를 놓고 협상을 벌여야 할 것입니다. 어떤 형태가 되든, 이 임시적인 정치적 미래에는 국가연합과 유사한 제도적 장치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제도 중에는 군축, 군대 구조조정, 감시/검증 기관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공동의 정치적 미래 비전을 개발하려면 정부 관리와 비정부 정치/경제/군사 전문가(학계 및 기타)가 참여하는 남북 간 (비공식, 비공식) 회의를 여러 차례 개최해야 합니다. 이러한 회의의 주요 목적은 참가자 간의 친밀감과 신뢰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신뢰 구축 과정은 수년(14년)이 걸리므로, 군축 및 재건 과정과 함께 공유된 정치적 비전에 대한 논의와 협상을 시작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재래식 병력 구조조정 및 감축 프로세스

국가 지도자들이 군대 감축과 구조조정이라는 공동의 목표에 동의하면, 이 섹션에서 제안하는 프로세스는 체계적으로 상호 일방적(15) 및 양자 간 협상 단계를 모두 사용합니다. 이러한 단계는 저비용 및 저위험 단계부터 신중하게 시작합니다. As
공동의 정치적 목표에 대한 약속에 대한 신뢰가 쌓이고 취한 조치가 보안상의 이점을 가져온다면, 그 과정은 더 크고 위험하며 비용이 많이 드는 단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10년 이상의 반복적인 상호주의가 필요할 수도 있지만, 결국 남북한은 새로운 정치적 관계(16)에 부합하는 안정적인 수준과 무기 처분을 향한 빠른 진전을 허용하기에 충분한 소규모 재편된 군사 태세에 대한 입증된 약속을 통해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북한은 이미 러시아와 중국이 제안한 '이중 동결'에서 상호 일방적인 조치를 취했다. 2017년 말, 북한은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한국은 미국을 설득하여 예정된 대규모 합동 군사 훈련을 취소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데탕트의 시기를 여는 효과를 가져왔고, 이후 직접 협상과 정상회담을 평양과 워싱턴의 각 국내 청중이 정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반복적 상호 일방주의는 범위와 시간 면에서 '동결'

과 다릅니다. 여기에는 여러 차례의 상호 단계가 포함됩니다.

프로세스: 일러스트레이션 및 토론

한국에서의 프로세스는 먼저 정부 차원에서, 그리고 정부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민간 대학/연구소 차원에서 별도의 남북한 토론과 세미나(비공개, 비공식)를 개최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17). 이러한 회의와 전문가들의 관련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단계별 선택적 고용을 위한 구조화 및 감축 옵션
정부.

메뉴의 첫 번째 초안이 채택되고 공유된 정치적 미래 트랙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다고 가정하면, 한 정부는 저비용, 저위험 군 구조조정을 시행하기로 결정할 것입니다.
링/감축 이동. 예를 들어, 한국의 경우, recog-
남측의 우월한 전투기/공격기의 위협에 대한 북측의 인식을 고조시키면서 한두 대의 편대를 이동시키는 제스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전투기/공격기를 활성 상태에서 예비 상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군비 외교의 성공 여부는 반복되는 상호주의를 유지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을 당황하게 하거나 모욕하거나 상대방에게 프로세스를 중단할 이유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양 당사자의 상호 이익에 부합합니다. 상호주의가 중단되면 다시 시작하기가 어렵습니다. 가능한 한 긍정적인 공개 선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남한이 이전을 발표할 때, 북한은 이전이 안보상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것을 자제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구심이나 우려는 추후 남한과의 외교적 소통 과정에서 논의하거나 언급할 수 있습니다(18).

남한이 일방적으로 병력 배치에 변화를 주었으니 이제는 북한이 보답해야 할 때입니다. 이 외교적 접근의 모범 사례에서 북한은 두 가지 제스처를 취할 것입니다.
보답하고, 두 번째는 다음 단계의 호혜적 교류를 주도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를 취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북측의 두 번째 조치는 남측의 두 번째 조치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남측은 세 번째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북측이 세 번째 조치를 요청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남과 북은 상대방이 아직 보답하지 않은 조치를 번갈아 가며 취함으로써 상징적(그리고 어느 정도는 실제적)인 취약한 입장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이 상징적인
적대적 관계에서 평화와 합의의 관계로 전환하는 데 있어 사소한 취약점을 교환하는 것은 중요한 측면입니다.

신뢰 구축 방어 설계는 견고하고 효율적인 구조를 통해 취약성을 줄입니다. 재래식 전력을 감축하면서 C-BD 군사 구조로 전환하는 것은 그 자체로 재래식 군비 감축 과정의 한 단계가 될 것이며,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 더욱 그러합니다.
양측은 이러한 변화의 가치를 서로 인정합니다. 신뢰 구축형 방위력 구조를 채택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각국이 (대)공격 교리를 고수하면서 재래식 전력을 감축하려 할 때보다 더 빠른 속도로 더 큰 폭의 감축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과정의 왕복 단계는 반드시 현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메뉴(19개)가 있습니다. 남과 북은 메뉴를 통해 대략 비슷한 수준의 군사적 위협 감소, 비용, 위험성을 가진 항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동시적 상응 조치의 예로 북한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현재 38th 근처에 배치된 포병의 일부를 50-75km 떨어진 위치로 철수합니다.

남과 북이 첫 번째 호혜적 조치를 취하는 즉시, 아직 진행 중이 아니라면 군사 전문가를 포함한 남과 북의 관리들 사이에 직접 회담이 이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회담에서는 방금 일어난 일에 대한 솔직하고 존중하는 평가가 교환될 것입니다. 이 과정 전반에 걸친 일상적인 논의는 양측이 생산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추가 단계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쌓은 신뢰의 정도와 상대방과의 관계 발전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이 감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정치적 및 안보적 위험의 정도에 따라 조정된 단계가 서로 뒤따라야 합니다. 상호 교환의 궤적은 일반적으로 낮은 비용에서 높은 비용으로, 매우 적은 보안 위험에서 큰 보안 위험으로 향하는 방향입니다. 프로세스가 진행되기 전에는 모든 단계를 상상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참여자의 경험, 많은 독립적인 주체들의 행동과 반응, 기타 수많은 외생적 요인에 반응하는 역동적인 과정이 될 것입니다.

로렌스가 주장하듯이, 당사자들이 매몰 비용을 축적하는 것은 공동의 목표에 대한 헌신을 구축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는 "...매몰 비용은 시간이 지나면 되돌릴 수 없다는 점에서 미래 지향적인 약속을 말

합니다(20)"라고 말합니다.

수십 차례의 상호적 조치를 교환한 후, 양측은 일련의 조치에 대한 양자 협상을 해야 할 설득력 있는 이유를 찾을 수 있을 만큼 관계를 발전시켰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양자 간 합의는 이미 취해진 일방적 조치의 구체적 내용을 벗어난 문제와 항목을 다룰 수 있습니다.

일방적인 조치만으로는 자체 검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종종 개시 당사자가 무엇을 했는지 완전히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프로세스가 여러 상호주의 주기를 거치면서 진행됨에 따라 양자 간 협상에서 검증, 특히 침입 사찰이라는 까다로운 주제를 다루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당사자 간의 신뢰가 낮게 유지되는 인출 프로세스 초기에는 침입 조사 및 기타 검증 방법에 대한 개방성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해야 합니다. 보안 위험이 너무 커 보일 것입니다. 초기의 일방적인 조치는 그 자체로 위험도가 낮으며 그러한 조사의 필요성이 설득력이 없어 보일 것입니다. 나중에 더 크고 위험한 조치가 취해지면 공식적인 현장 점검이 필수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21).

반복적인 상호 프로세스가 계속되고 수년간의 군비 감축, 구조조정, 정치적 신뢰 구축이 이루어지면 남북한은 예상되는 감축 종점을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생산적인 논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재래식 전력의 규모와 복잡성으로 인해 중간 과정의 비전에는 높은 수준의 구체성이 결여될 수밖에 없겠지만, 이러한 잠정적 종점에 대한 스케치는 후속 단계를 안내하는 데 유용할 것입니다. 수년에 걸친 일방적 조치의 축적이 양

자 간 합의된 감축으로 보완되면 더욱 집중적이고 구체화된 최종 목표에 수렴되고 구체화될 것입니다.

확인, 헤징 및 부정 행위

재래식 병력을 감축하고 재편하는 여러 단계의 반복적인 과정은 외교적 수준과 군사 기술적 수준에서 정치적 선언의 충실한 이행을 검증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제공합니다. 재래식 병력 감축을 위한 아주 소폭 이상의 조치에 대한 국내 정치적 지지를 유지하고 안보 위험을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려면 다음과 같이 진행해야 합니다.
남과 북의 정부는 검증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입니다.
강제력 변경 및 부정행위 적발 건수를 확인합니다.

로렌스는 '*다른 수단에 의한 정상화'라는* 연구 논문에서 국가는 구두, 서면, 일방적인 신호 행위로 안보 약속과 공약을 헤지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합의의 실패 가능성에 대한 헤지(22)"로서 "은밀한 잠재적 능력"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는 모든 헤징 활동이 그 자체로 외교 과정을 파괴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헤징을 하는 국가는 "헤징을 통해 더 많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을 때보다 더 위험한 정치적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상호 교류 초기에는 신뢰가 미미할 때 한 국가가 일방적인 움직임으로 인해 발생한 취약성을 다른 곳에 대한 군사 투자로 상쇄하려고 시도할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이러한 상쇄 투자가 신뢰 구축 방어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면 일방적인 조치의 가치를 떨어뜨릴 가능성은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징과 상쇄 투자는 때때로 전체 프로세스를 늦춰 상대방의 대담한 움직임을 제한하고 억제할 수 있습니다.

로렌스는 또한 "... 모든 국가는 자국의 안보가 위태롭다고 인식하면 협상에 '속임수'를 쓰게 된다(23)"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현실은 다음과 같은 상호 약속의 잠재력을 실현하는 데 문제를 제기합니다.

재래식 군비 감축. 이 섹션에서는 부정행위의 파괴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해 고안된 군비 감축 외교에 대한 접근 방식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완화 방법 중 일부를 소개합니다:

- 오랜 기간에 걸쳐 여러 작은 단계로 구성된 프로세스는 각 단계의 보안 효과를 조사하고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정보 수단에 의해 평가된 단계의 발표와 실제 사이의 불일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각 단계의 보안 위험이 낮기 때문에 특정 단계의 부정행위가 의심되거나 발견되었을 때 군비 감축 과정의 전반적인 신뢰성에 대한 손상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지속적인 공식 회의는 불일치와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안에 대해 외교적으로 신중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매몰 비용과 위험은 수년에 걸쳐 서서히 누적되므로 군사 정책의 변화를 조정하여 효과가 각 당사자에게 어느 정도 균등하게 돌아가도록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세스를 통해 특정 속임수를 사용하더라도 변경이 한 번에 이루어졌을 때보다 그 결과가 덜 심각합니다.

  포괄적 군비 통제 협정이 한 시점에 시행되었습니다.
- 당사자들이 신뢰 구축 방어 태세를 채택하는 한, C-BD 태세에서 발생하는 강력한 방어 효율성은 부정 행위의 영향을 크

게 완화할 수 있습니다.

결론

70년간의 분쟁으로 인해 한국의 평화로운 미래에 대한 희망은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언제 평화가 올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지만 조만간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이 섹션의 목적은 미래 남북한 평화 관계의 한 부분으로서 소규모의 덜 공격적인 재래식 군대를 위한 외교적 협상의 이론과 실제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평화로운 미래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많은 변화가 필요하며, 재래식 군대의 변화는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입니다.

재래식 전력 감축 협상을 시작할 때 양측은 상대방의 의도에 대해 많은 의구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불신의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비용, 저위험의 군 구조조정과 감축 단계를 순차적으로 진행함으로써, 한반도에서 더 작고 위협이 적은 군대의 공동 미래에 대한 매몰된 군사 투자를 축적함으로써 신뢰가 구축될 것입니다.

이러한 협상의 참가자들이 평화로운 관계에 적합한 수준과 유형으로 군비를 축소하려는 진정한 의지가 없다면 자발적으로 그러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것입니다.

신뢰 구축형 방위 구조는 남과 북의 관계가 침략에 적합한 군사적 우위 태세가 아닌 상호 방위 자급자족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으로

신뢰 구축 방어 원칙을 병력 재편에 적용하면 병력 감축 과정을 더욱 신속하고 확실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각주

1. 2018년 판문점 선언 3.2항.

2. *2018-9-19 남북 군사 합의서.*

3. 2017년 8월 8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은
더 이상 미국에 위협을 가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들은 세계가 본 적 없는 화염과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베이커, 피터, 최상훈, *트럼프, 미국을 위험에 빠뜨리면 북한에 '화염과 분노'를 가하겠다고 위협하다.*

2017년 8월 20일, 국가안보보좌관 H.R. 맥매스터 중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예방 전쟁에 대한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가? 대통령은 그것에 대해 매우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북한이 미국을 위협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생어, 데이비드 E., *백악관에서 북한에 대한 '예방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떠오른다.*

한국에서의 전쟁 가능성을 우려한 한국의 문 대통령은 텔레비전으로 중계된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옵션을 사용하든, 그들은 약속했습니다.
한국과 사전에 협의하고 우리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것은 확고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국민들은 전쟁이 없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펄레즈, 제인, 최상훈, *배넌과 던퍼드의 발언으로 미국의 대북 전략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4. 기사, *남북정상회담 선언: 리뷰*

5. 백악관,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싱가포르 정상회담 공동성명*.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측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의 의미를 이해했는지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한국에서 이 표현이 사용된 역사를 보면 이 표현은 북한 핵무기뿐만 아니라 북한이 보유한 모든 핵 능력을 가진 무기를 포함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미국은 때때로 한반도는 물론 역내까지 파병하고 있습니다. To

워싱턴과 평양 모두 비핵화의 범위를 정의하는 이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 데 회피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관리들은 회담의 유일한 주제가 북한의 비핵화인 것처럼 일관되게 말하고 있습니다.

6. 2019년 12월 현재 미국과 북한 간의 협상은 비핵화를 향한 단계적 조치, 실질적인 안전 보장, 관계 정상화에 대한 어떠한 합의도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협상은 사실상
중단되었습니다. 미국과 한국 (동맹국)과 북한 간의 접근 회피 관계는 수십 년
동안 표준이었으며, 이는
조만간 화해가 이루어지고 심각한 재래식 무력을 추구할 또 다른 기회가 다시 올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감축 협상.
북한과 남한은 다음과 같은 목표를 추구하기로 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협상 파트너로서 미국의 초기 참여 없이 재래식 병력 감축을 추진했습니다. 재래식 병력 감축에 대한 복잡한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이 섹션에서는 남북한 양자 간 협상 모델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과정에 미국을 포함시키는 가장 생산적인 방법은 한국이 주한미군 감축을 위한 협상과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조치를 보완하는 구조조정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양자 간 동시 협상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한국과 미국, 한국과 북한.

7. 라시나, *PRIO 전투 사망자 데이터 세트, 1946-2008.*

8. 로렌스, *북한과의 교전 이론.*

9. 신뢰 구축 방어(C-BD) 에는 다양한 유형의 *신뢰 및 안보 구축 조치(CSBM)*가 포함될 수 있지만 CSBM과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반면
CSBM은 소통과 절차 문제를 강조하고, C-BD는 군사 구조와 교리가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특히 주의를 기울입니다.
신뢰와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CSBM을 제도화하면 다음과 같이 정상화할 수 있습니

다.
교리 및 국방 계획 정보를 교환하여 C-BD의 임신을 돕습니다.

10. 코네타, 외, *남부 아프리카의 안보에 대한 신뢰 구축.*

11. C-BD 구성 요소의 전반적인 통합과 지상, 공중, 해병대에 대한 적용은 Conetta, Carl, Lutz Unterseher, *Confidence- Building Defense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994년 네덜란드, 체코, 헝가리, 벨라루스에서 개최된 세미나를 위해 준비된 슬라이드 모음집, 신뢰 구축 국방: *기본 설계 원칙.*

이 세미나는 대안 안보 정책 연구 그룹(SAS)과 국방 대안 프로젝트(PDA)가 주관하고 공동 후원했습니다. http://comw.org/pda/fulltext/Fundamental CBD의 원칙.pdf

12. 군 구조가 축소된다고 해서 그에 상응하는 비율의 예산이 절감될 것이라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장비, 병력 구조 및 통신 변경과 관련된 비용을 고려할 때 실제 예산 절감액은 명목상 구조 변경 규모의 40~60% 범위입니다. 즉, 명목상 40%의 규모를 줄이면 16~24%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전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현대화의 정도와 같은 세부 사항에 따라 많은 부분이 달라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감 잠재력은 남북한 모두 연간 군사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것이며, 수십 년 동안 새로운 표준으로 유지된다면 특히 대규모 군사 시설 유지에 따른 사회/경제적 기회 비용과 관련하여 한국에 매우 큰 이익을 축적하게 될 것입니다.

13. 2.2절 "당근과 채찍에서 기술-정치적 미래로", 로렌스, *북한과의 관여 이론.*

14. 냉전 말기 동서 안보 회의의 경험에 따르면, 회의 참가자 중 극히 일부만이 결국 분쟁의 반대편에서 온 상대방과 충분한 신뢰와 친밀감을 쌓아 회의의 협력적 군축과 평화 목표를 향해 건설적으로 일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 협력자들은 결국
모스크바와 워싱턴, 그리고 그 사이의 수도에서 일부가 그랬던 것처럼 정부 정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15. 대부분의 경우 이 섹션에서는 상호 조치의 맥락에서 일방적인 군사 태세 변경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C-BD 태세를 향한 구조조정 과정이 진행됨에 따라 즉각적인 상호주의 없이도 무력 요소의 일방적인 감축 및 변경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한 국가가 구조조정 감축에 상응할 준비가 된 파트너가 없더라도 C-BD의 효율성과 비도발적 측면의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16. 유럽에서 냉전의 해빙은 1972년 닉슨 대통령과 브레즈네프 서기장이 헬싱키 회담을 출범시키기로 한 결정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유럽안보협력회의(CSCE) 및 비엔나 뮤추얼

유럽 내 균형 군비 감축(MBFR) 협상. 1975년 35개국이 서명한 헬싱키 최종법에는 주요 군사 훈련에 대한 통지 절차를 포함한 여러 가지 중요한 CSBM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후 10년 동안 재래식 군대 회담의 진전은 더디게 진행되었고, 대부분 나토와 WTO의 제안 교환으로 제한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88년 12월 고르바초프 서기장은 유엔 연설에서 중앙 및 동유럽에서 소련군 5만 명을 일방적으로 철수하고 남을 병력을 방어적으로 재편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 후 다자 협상이 빠르게 진전되었습니다.

1989년 1월, MBFR 회담은 NATO와 WTO의 공동 명령에 따라 대서양에서 우랄까지 지리적 범위를 확대한 유럽 내 재래식 군대(CFE) 협상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반 만에 유럽 내 재래식 군대에 관한 조약(CFE)이 체결되었습니다. 이 조약은 유럽 냉전 종식의 주요한 구체화였습니다.

17. 국가 안보 정책 결정이 최고위층에 집중되어 있는 북한에서 비정부 국가 안보 전문가와 정부 기관의 중하위급 인사들의 참여는 특별한 도전이 될 것입니다. 기존에 없던 새로운 아이디어와 공식화를 표현하는 개인들
정부 최고위층에서 승인한 사람들은 자신의 안전을 위험에 빠뜨린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북한이 제안된 프로세스에 정치적으로 헌신한다면
재래식 철수, 북한 지도자가 "새로운 아이디어"의 창출을 명시적으로 장려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소련에서는 수십 년 동안 위로부터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국가 안보 옵션에 대한 창의적인 탐색이 억제되었습니다. 고르바초프 시절에는 상황이 바뀌었고 1980년대 후반에는 소련이
지식인과 정책 분석가들은 상호 안보 문제에 대해 다양한 서구인들과 공개적으로 지적 토론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루츠 운터세어는 회고록 '*즐거운 점심식사*'에서 고르바초프가 1988년 12월 일방적인 국방 구조 개편과 소련군 감축이라는 역사적인 발표를 하기 거의 2년 전인 1987년 초부터 크렘린의 주도와 (당시 서독) 내륙 정보국의 동의 하에 신뢰 구축 국방 연구 논문이 모스크바로 전달된 과정을 자세히 설명

했습니다.
중앙 및 동유럽.

18. 이 초기 일방적 움직임의 예시에서는 남한의 군사 태세에 대한 비용이나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고 상대적으로 적은 것을 선택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안보적 이득. 모든 당사자들은 한국이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공군 비행대를 재가동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는 평화적 의도와 기대의 정치적 제스처로서 가장 큰 의미가 있습니다.

19. 재래식 병력의 규모와 복잡성으로 인해 각 국가는 광범위한 구조조정 및 감축 옵션을 수집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황이 변할 것이므로 각 정부의 구조조정 및 감축 메뉴는 정기적으로 재검토하고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하나의 "확립된" 옵션 메뉴에 집착하면 최적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메뉴의 개정은 직접적으로
각 국가의 메뉴가 비밀로 유지되기 때문에 외교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0. 로렌스, *다른 수단을 통한 정상화*, 4-5쪽. 로렌스는 "매몰 비용"이 명시된 군비 통제/감축 목표에 대한 노력의 정도를 나타내는 가장 좋은 지표 중 하나라고 주장합니다(Fearon, *시그널링 외교 정책 이해관계* 인용).

21. 하라한 앤 쿤, *CFE 조약에 따른 현장 조사*.

22. 로렌스, *다른 수단에 의한 정상화*. 22 페이지.

23. Ibid. 17쪽.

부록

국가 군사 안정의 원칙

찰스 나이트(2019년 1월)가 코네타 외, *남부 아프리카의 안보에 대한 신뢰 구축,* 1996에서 각색.

군사적 안정화는 적절하고 경제적인 국방 시설과 충분하고 확고하며 무력시위가 불가능한 방어 태세를 통해 가장 잘 달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군 구조는 다음을 피해야 합니다.

기존 또는 잠재적 내전 악화에 기여하는 행위.

적절한 국방 시설은 해당 사회에 적합한 시설입니다. 국가는 외국의 군사 구조를 모방하는 것에 신중해야 하며, 오히려 국가의 특성과 국민의 능력에 맞게 건설해야 합니다.

경제적인 국방은 기존의 자원과 인구학적 제약 내에서 안보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경제성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방어 의도에 확신이 있는 국가는 방어 지향의 구조적 및 운영 효율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홈 코트"의 이점에는 자국 영토를 방어하는 군대의 높은 사기, 지형에 대한 친밀한 지식, 짧은 보급 및 통신 라인, 전투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집중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기회 등이 있습니다. 또한 방어 지향의 고유한 효율성은 비도발성, 충분성, 견고성, 경제성 등 다양한 신뢰 구축 방어 기준을 보다 쉽게 조정할 수 있게 해줍니다.

충분성은 방어 태세가 위협 매트릭스와 얼마나 잘 일치하는지를 나타냅니다. "일치"의 정도에는 위협의 질적 측면과 양적 측면이 모두 포함됩니다. 충분성 측정에 대한 맥락을 제공하기 위해 국가 목표에 대한 광범위한 검토를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프로세스는 보호해야 할 대상을 구체화하고 국가가 달성할 수 있거나 달성하고자 하는 방어 또는 억지력의 확실성 수준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목표가 명확해지면 군사적 "충분성"을 결정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많은 경우, 국가는 어떤 침략도 빠르고 쉽게 물리칠 수 있는 투명하고 확실한 능력을 필요로 하는 최고 수준의 억지력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는 크고 강력한 이웃 국가가 있는 많은 작은 국가들이 흔히 겪는 딜레마입니다. 그러나 더 낮은 목표는 달성 가능하고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침략 비용을 크게 높이고 동맹국의 지원 개입을 위한 시간을 벌어 효과적인 억지력을 달성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확고한 태세는 견고함과 책임감의 자질을 결합한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견고함이라는 개념에 포함되기도 하지만, "견고함"은 방어 태세의 본질적인(즉, 비관계적인) 측면을 의미합니다. "무결성"과 "응집력"은 견고함에 대한 대략적인 동의어입니다.

견고성이란 방어 어레이가 치명적인 붕괴 없이 충격을 흡수하고 손실을 입지 않는 능력을 말합니다. 대신, 방어는 응집력 있는 전투 능력을 유지합니다. 압도적인 수준의 위협에 직면하더라도 견고한 방어력은 서

서히 저하되어 재편성, 외교적 개입 또는 외부로부터의
지원. 일반적으로 확고하고 견고한 군사 태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적에게 유리한 표적을 제공하는 집중된 병력과 거점 지역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적의 전용 혁신 프로그램을 통해 대응할 수 있는 좁은 기술 세트에 의존하지도 않습니다.

신뢰성은 확고함의 두 번째 측면으로, 다양한 '환경적' 상황에서 높은 자신감을 가지고 계획대로 수행할 수 있는 군의 역량을 의미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국방은 '고위험' 작전 계획이나 미성숙하거나 제대로 통합되지 않은 기술에 의존하는 보안 도박을 피할 수 있습니다.

신뢰성은 군대와 사회의 사회적 관계, 그리고 군인의 동기 부여와 훈련의 함수이기도 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군대는 중요하면서도 제한적인 역할로 이해되는 국가에 양심적으로 봉사할 동기와 준비가 되어 있는 군대입니다.

방어 태세는 (i) 대규모 또는 기습적인 국경 간 공격 능력이 거의 또는 전혀 없고, (ii) 침략자의 공격에 취약한 고가치 목표를 거의 제공하지 않는 경우 *비도발적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지침은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는 시기, 즉 선제 공격에 대한 두려움과 기회로 인해 피할 수 있는 군사적 충돌이 촉발될 수 있는 위기 불안정 문제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도발 금지 기준은 또한 일반적으로 공격 지향적인 군사 구조에 대

한 의존도를 줄임으로써 안보 딜레마의 더 큰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를 통해 조직화된 군대에 내재된 침략의 위협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위협은 종종 군비 경쟁과 이에 상응하는 공격 교리를 자극합니다. 군사 구조를 방어적인 정치적 목표에 부합하게 함으로써 비

도발 기준은 국가 간의 긍정적인 정치적 관계와 신뢰의 출현을 촉진합니다. 반대로 다른 국가에 힘을 투사하려는 교리와 무력 태세는 정치 및 조직 구조에 의해 확실하게 제지되지 않는 한 도발적인 것입니다.

심각한 민족적, 정치적 분쟁을 경험한 국가의 경우 국가 안보 기구 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원심력에 기여하지 않습니다. 군사 기능은 탈정치화되어야 하며 경찰 기능은 군사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군대의 위치는 국가의 인종적 균형을 최대한 반영해야 합니다.
가능한 한. 전일제 군대는 일반적으로 전국적으로 복무하고, 비상근 군대는 지역적으로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해야 합니다. 상근 및 비상근(국가/지역) 군대는 철저하게 통합되고 상호 의존적이어야 하며, 국가의 정치적 동의에 큰 부담이 되는 상황에서도 민간인의 통제가 보장될 수 있어야 합니다. 효과적인 신뢰 구축 방어를 구현하려면 *상황*, *국제 관계*, *최적화* 과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어에 최적화된 군대는 전술적 수준에서 상당한 공격 능력을 보유하게 됩니다. 이러한 공격 능력은 주변국의 관점에서 전략적 중요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획은 많은 군사적 옵션의 도발적 성격에 민감해야 하며, 특히 다음과 같이 힘의 비대칭이 큰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국가. 국가 단위의 방어적 구조조정이 그 자체로 모든 공격적 잠재력을 포기할 수는 없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국가 간 긴장과 불신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신뢰 및 안보 구축 수단(CSBM)*의 제도화는 교리적으로 다른 국가 간의 교류를 정상화할 수 있습니다.

및 국방 계획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국방 계획 옵션의 지역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포럼을 제공합니다. *신뢰 구축 방어(C-BD)*의 개념에는 대부분의 유형의 CSBM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CSBM이 소통과 절차 문제를 강조하는 반면, 신뢰 구축 방어는 군사 구조와 교리가 신뢰와 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특히 주의를 기울입니다.

경제성, 견고성, 신뢰성, 비도발성이라는 동시 목표에 내재된 계획 문제에는 *최적화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리소스 적용의 최적화는 다음을 수행합니다.

병동 목표 달성은 모든 기관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그 어느 때보다 군사 정책 옵션은 그 영향력을 고려하여 평가되어야 합니다.

국내 및 국제 사회, 정치, 경제 관계의 매트릭스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특정 무기 플랫폼의 전술적 성능과 같은 군사 기술적 고려사항이 정책 최적화를 위한 중요하지만 불충분한 근거라는 사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참고 문헌

베이커, 피터, 최상훈, *트럼프, 북한이 미국을 위험에 빠뜨리면 '화염과 분노' 위협*, 뉴욕타임스, 2017년 8월 8일, https://www.nytimes.com/2017/08/08/world/asia/north-korea-un-sanctions-.핵-미사일-유엔.html (2019년 12월 29일 액세스)

코네타, 칼, 찰스 나이트, 루츠 운터셔, *중동의 방어적 구조조정을 향하여*, PDA 연구 논문 1호, 커먼웰스 연구소, 1991년 2월. http://www.c o m w . o r g / p d a / 9 7 0 3 r e s t r u c t . h t m l (29 액세스) 2019년 12월)

코네타, 칼, 찰스 나이트, 루츠 운터세어, *행동하는 방어적 군사 구조: 역사적 사례*, 커먼웰스 연구소, 1994. http://www.comw.org/pda/webbtl.htm (2019년 12월 29일 액세스)

코네타, 칼, 찰스 나이트, 루츠 운터세어, *남부 아프리카 안보에 대한 신뢰 구축,* PDA 브리핑 보고서 #7. 커먼웰스 연구소, 1996 http://www.comw.org/pda/sa-fin5.htm (2019년 3월 15일 액세스)

코네타, 칼, 찰스 나이트, 루츠 운터세어, *구 유고슬라비아 후속 국가의 방어적 구조 조정*, PDA 브리핑 보고서 #6, 커먼웰스 연구소, 1996년 3월 http://www.comw.org/pda/bozfinal.htm (29 액세스) 2019년 12월)

코네타, 칼, 루츠 운터세어, *신뢰 구축 방어: 기본 설계 원칙*, 1994년 네덜란드, 체코, 헝가리, 벨라루스에서 열린 세미나를 위해 준비한 슬라이드 모음. 대안 안보 정책 연구 그룹(SAS) 및 국방 대안 프로젝트(PDA). http://comw.org/pda/fulltext/Fundamental CBD의 원칙.pdf (2019년 12월 29일 액세스)

미국 과학자 연맹, *CFE 연대기: 유럽 내 재래식 부대 조약,* https://fas.org/nuke/control/cfe/chron.htm
(2019년 12월 19일 액세스)

Fearon, James D., *외교 정책 관심사 신호*, 분쟁 해결 저널, 41:1, 1997 년 2 월, 68-90.

페론, 앙리, 찰스 나이트, *안전 보장이 북한 핵 위기 해결의 열쇠인 이유, 미국* 국익, 2019년 6월 27일. http://comw.org/pda/fulltext/190627 안전 보장 TNI.pdf (2019년 12월 19일 액세스)

Grin, John 및 Lutz Unterseher, *거미줄 방어*, 원자 과학자 회보, 44:7, 1988, 28-31.

Harahan, Joseph P., 및 John C. Kun, *CFE 조약에 따른 현장 검사,* 현장 검사 기관, 국방부, 워싱턴 DC, 1996 https://www.dtra.mil/Portals/61/Documents/History/On-Site 검사 CFE 조약-final.pdf (2019년 12월 14일 액세스)

나이트, 찰스*, 2018 년 4 월 27 일 남북정상회담 선언: 상세 검토,* 국제정책센터, 2018 년 5월 1일. http://www.comw.org/pda/fulltext/180427 판문점 정상회담 선언 - review.pdf (2019년 11월 19일 액세스).

라시나, 베서니, *PRIO 전투 사망자 데이터 세트, 1946-2008,* 버전 3.0, 오슬로 평화 연구소, 359-362면 https://files.prio.org/ReplicationData/BattleDeathsDataset/PRIO 전투 사망자 데이터 세트 3.0 문서.pdf (2019년 11월 20일 액세스)

로렌스, 크리스토퍼, *북한과의 관여 이론,* 원자 관리 프로젝트, 벨퍼 센터, 하버드 케네디 스쿨, 2019년 5월. https://www.belfercenter.org/sites/default/files/files/publication/A 북한과의 관여 이론_2.pdf (2019년 12월 19일 액세스)

로렌스, 크리스토퍼, *다른 수단을 통한 정상화: 북한 핵 위기에서 경수로 수출의 실패한 기술 외교,* 실무 논문 NboM_V 1.2, 벨퍼 센터, 하버드 케네디 스쿨, 2018 년 4 월 25 일. http://stsprogram.org/admin/files/Lawrence_working_paper_KEDO_V1.2.pdf (2019 년 12월 15일 액세스)

국가 안보 아카이브, *거버너스 아일랜드의 레이건, 고르바초프, 부시: 1988년 뉴욕 정상회담에 관한 소련과 미국의 이전 비밀 문서,* https://nsarchive.gwu.edu/briefing-book/russia-programs/2018-12- 07/reagan-gorbachev-bush-governors-island (2019년 12월 22일 액세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2018년 4월 27일. 로스앤젤레스 타임즈
https://documents.latimes.com/panmunjom-declaration-peace/ (액세스 01 2020년 1월)

펄레즈, 제인, 최상훈, *배넌과 던포드 발언으로 미국의 대북 전략 혼란,* 뉴욕 타임즈, 2019년 8월 16일.
https://www.nytimes.com/2017/08/16/world/asia/north-korea-trump-moon-jae-in-south.html (2019년 12월 29일 액세스)

생어, 데이비드 E., *백악관에서 북한에 대한 '예방 전쟁' 논의가 고조되고 있다,* 뉴욕 타임즈, 2017 년 8 월 20 일.
https://www.nytimes.com/2017/08/20/world/asia/north-korea-war-trump.html (2019년 12월 29일 액세스)

Studiengruppe Alternative Sicherheitspolitik (SAS) (ed.), Vertrauensbildende Verteidigung. 독일 보안 정책 개혁, Gerlingen: Bleicher, 1989.

2018년 9월 19일 평양에서 대한민국(대한민국)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무력상 노광철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이 체결한 남북 군사합의서, 동아시아연구원, 2018년 9월 30일.
https://eastasiaresearch.org/2018/09/30/historic-panmunjom-declaration-in-the-군사 분야-남북한-군사 합의서 서명-2018-9- 19/ (2019년 11월 20일 액세스)

백악관, *미합중국 대통령 도널드 J. 트럼프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김정은의 공동 성명*
대한민국,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정상회담.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s-statements/joint-statement-president-donald-j-trump-ited states-america-chairman-kim-jong-un-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한민국-싱가포르-정상회담/ (2019년 11월 19일에 액세스)

언터허, 루츠, *즐거운 점심: 서방 트랙 2가 1988년 고르바초프의 재래식 전력 이니*

셔티브에 미친 영향, 초청 간행물, 국방 대안 프로젝트, 2018년 8월.
http://www.comw.org/pda/fulltext/1811Unterseher-Romberg.pdf (2019 년 12 월 09 일 액세스)